

스마트 미디어의 양가성(Ambivalence)에 대한 소고

스마트 미디어가 가져온 인간사회의 변화는 상당히 다채롭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스마트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간해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엄습해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 2~3년 사이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나타난 크고 작은 변화는 테크놀로지의 양가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양가성(ambivalence)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 갈등적 감정을 동시적으로 갖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객체, 상황에 대해 상반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의 생각이나 태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양가성은 흔히 일반적인 유형의 “혼합된 감정”을 경험할 때 발생하며,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우유부단함을 경험할 때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대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이다. 유사 이래 사람들은 인류가 발명한 다양한 기술적 산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토대로 유토피아(utopia)와 반유토피아(dystopia)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양가성(technological ambivalence)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가져온 삶의 혜택과 동시에 역기능적인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양가성은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에서 테크놀로지와 스마트 미디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 속에서나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스마트폰이 불러온 소통방식의 변화양상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어디를 가나 쉽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은 대중들의 삶의 방식을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 시절’과 크게 달라지게 하였다.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구들이 저녁식사 후 TV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하는 모습은 ‘월드컵 축구중계’와 같은 전국민적 시청 상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가족은 개개인이 선호하는 스마트 미디어로 인해 더욱 단절되고, 소원해지는 현상이 늘고 있다.

사회적 소통양식이나 시민들의 여가활용 방식도 크게 달라진지 오래이다. 아무리 복잡한 출퇴근시간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개인화된 스마

트미디어 이용자들이 심중팔구에 속한다. 봄비는 지하철 안에서든 사람들은 현실을 느끼고, 주위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눈인사를 나누기보다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콘텐츠를 즐기고,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와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바야흐로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무관심해지면서 시,공을 초월한 그 누군가에는 친절하게 말을 걸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보그 시대의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들의 행진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기기들은 갈수록 인간의 해체와 소외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와 진보한 기술세계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킨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이나 과학의 진보를 바탕으로 건설된 디스토피아를 그린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가 주목받는 이유도 맹목적 기술 찬미론자들이 지향하는 테크토피아(techntopia)적 사고가 불러올 참담한 현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미래 소설들은 과학의 발달로 모든 일상이 편안해지고 문명은 더욱 발달하지만 환경은 더욱 인공적이 되어버린 21세기 디지털 정보사회 거주민들에게는 더욱 생생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다. 특히 가상의 “빅브라더”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경고 메시지는 최근에 미국의 전 CIA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 행해온 민간인 정보수집 실태뉴스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소위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빅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미래소설 속에 그려진 내용 중에 주목할 대목이 있다. 가상의 미래 전체주의 계급사회에서도 ‘공공성’과 ‘안정’이 중요시되며, 과학기술로 인간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 세계질서를 최고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에 21세기 기술 복지사회의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사회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계급으로 나뉘어져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거나 개인의 진정한 사랑은 금기시되는 동시에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끔직한 미래사회의 상상은 21세기의 네트워크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계문명의 극한적인 발달과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과학의 성과 앞에 테크놀로지의 노예로 전락해가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극단적 상황을 예시해 주기도 한다.

기술문명과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반유토피아적 비평은 블로그 기사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신문인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post)〉에는 2013년 6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용감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 인터넷 파이어니어로 알려진 톰 그린(Tom Green, 05/29/2013)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세상을 망쳤는가?”라는 글을 통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와 같은 기술 천재들에 대한 맹목적 찬사와 추종,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인간관계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통렬한 비판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세 이하의 미국인들은 컴퓨터와 소셜 미디어가 없었던 세상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아무도 이 시대의 락

큰롤이 되어버린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망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우리사회에서도 스티브 잡스는 기술공학도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영웅 시되어 있으며, 그가 만든 애플 워드나 스마트폰,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논객들은 많지가 않다. 기술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 네트워크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자 혹은 반란 세력으로 자처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반유평파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스마트미디어 애용자들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낙관론자 혹은 IT 종사자들이라면 한번쯤은 기술적 양가성에 대해 주목하고, 미래사회 테크노피아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한 이후, 개인의 삶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지고, 윤택해졌으며, 공적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다음으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주변을 살펴보고 점검하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쁨과 자유에 비해 실제 경험에서 점차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 또 프라이버시가 점차 사라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

려움은 없는지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연구하는 전공자로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스마트 기기들은 얼마나 자유를 주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었던 20년 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무수한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생산, 축적하는데 동참하고 있지만 체력과 사고력, 기억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고, 일상의 분주함은 견잡을 수 없는 속도의 수레바퀴에 깔려 인생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듯하다. 민주사회에서도 이제 개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스스로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며, 프라이버시가 없어진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네트워크 속의 수인(囚人: prisoner)들로 점차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서적인 의존감이 스마트 미디어에 더해질수록 새삼스레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에 대한 사랑과 증오, 복종과 반항, 쾌락과 고통, 금기와 욕망 등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내안의 감정을 수시로 점검할 때가 찾아 온 것 같다. 셀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자연 속에서 인생의 고민을 뒤로하고 오늘보다 더 많은 자유를 느꼈던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을 끄고서 조용히 자문해 볼 일이다.

저/자/소/개



설진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간단약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조지아 주립대학 언론학석사, 맥쿼리 대학교 언론학박사, EBS PD, KTE LA 기자, SBS Production PD역임, SBS 시청자 위원 역임,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2007-2008), 연구이사(2011-2012) 역임, 한국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기획이사(2010-2011)역임 .
- 연구분야 : 방송콘텐츠, 인터넷 저널리즘, 소셜 미디어.